



# 건강한작은교회연합

온라인 연합예배 2021년 5월 30일

[www.건작연.net](http://www.건작연.net)

유튜브 '건작연'

페이스북 '건강한작은교회연합'



# 온라인연합예배 예배순서

예배의 부름		안태훈 목사 (예인)
경배와 찬양		전영준 목사 (더작은) 박영순 집사 (예인)
공동기도	<p>감사</p> <p>자신과 이웃을 위해</p> <p>회원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p> <p>한국 사회와 세계를 위해</p>	<p>최여진 학생 (예인)</p> <p>최서진 학생 (예인)</p> <p>조윤경 집사 (언덕)</p> <p>김태완 목사 (언덕)</p>
성경읽기	사도행전 11:19-30	김형중 집사 (새숨)
설교	그때 그리고 지금	이민우버디 (세벳)
찬양	<p>우리에게겐 소원이 하나 있네</p> <p>(원제 : 우릴 사용하소서)</p>	다함께
봉헌기도		김남원 집사(새맘)
공동축도		김지윤 청년 (너머서)
광고		권요셉 목사 (더함)



## 다윗의 노래

Kang Score

임선호

그는 나의 주 아버지 - 내 영혼을 풀밭에 누 이시고 -

새와 나무의 노래로 - 내 맘을 위로 하여 주시네 -

양들이 - 주인 찾듯이 - 오직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

내가 찾고 또 따르니 - 주 곁에 나를 매어 주소서 -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 내 피할 곳은 주 뿐이네 - 나 돌아

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 내 주님 맞아 주시리 -



## 나 무엇과도 주님을

Wes. Sutton

인터콥 역

나 무엇과 - 도 주님을 바 - 꾸지 - 앎 으리 -

다 른 어 떤 - 온 헤 - 구 하지 앎 - 으리 - 오직 주님만 - 이 내 삶에 -

도움이 - 시니 - 주의 - 얼굴 보기 - 원합니다 -

주님 사 랑 - 해요 - 온 맘 과 정 성 다 해 -

하 나 님 - - 의 신 실 - 한 - 친 구 되 기 - 원 합니다 -

Copyright (C) 1997 Wes Sutton. International Rights Secured.



### ● 감사

최여진 학생 (예인)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가족과 친구, 교회 가족 들과의 관계에서,  
더불어 사는 생명의 풍요로움을 맛보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벅차고 힘들 때도 있고,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자신과 이웃을 위해

최서진 학생 (예인)

하나님,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우리가 속한 지역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게 해주세요.

이 땅에는 코로나 19로 더 힘들어진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또래들과 한참 뛰어놀아야 할 어린아이와 10대 친구들, 자기 개성을 살려 꿈꾸어야 할 언니, 오빠들, 열심히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는 분들 등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 아낌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나만의 행복과 안전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 ● 회원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

조윤경 집사 (언덕)

한국 교회가 세상의 외면을 받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루터기처럼 세우신 건작연과 회  
원교회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  
케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자,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 ● 한국 사회와 세계를 위해

김태완 목사 (언덕)

하나님,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이웃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귀한 만큼 이웃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고, 우리 모두가 이웃과 자연을 살리는 생명 지킴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남북으로 갈라진 한반도에 참 평화가 있게 하시고, 다시 하나 되는 그 날을 보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인도를 비롯한 저개발 국가들을 돕기 위해서 국제 사회가 더 힘을 모으게 해주시고, 군부 쿠데타로 고통 받는 미얀마와 불안정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참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19 그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 20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 21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 22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 23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 24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 25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 26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 27 그 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 28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 29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 30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있네

(원제:우릴 사용하소서)

김영표



우리 에겐소원이-하나있 네 주님 다시오-설-그날까 지 우리  
교회를향한-우리마 음 희생



가슴에-새긴주의 십자가-사랑나의 교회를-사랑게-하 네 주의



과포기-와 가난과고 -난-하물며죽음조-차 -우릴 막을수없네



우리 교회는-이땅의-희망 교 회를 교회되-게-예배 예배되-게-  
부흥의-날-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서- 건 정한 -서- 성령안-에예배 하리라-



자유의-마음으 로 사랑으-로사역 하리라- 교회는-생명이니 -

Copyright (C) 김영표 . Adm. By BEE Company(www.beecompany.co.kr).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 회중

탐욕과 껌데기 행복을 채우려다  
절망과 죽음을 향해 치닫는 인류를 구하시려고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 인도자

공의와 사랑, 완전한 회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아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 회중

이미 하나님나라 백성이 되어  
그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여 사는 이들에게  
충분한 지혜와 힘을 주시는  
성령하나님의 인도보호하심이

## 다함께

썩어질 풍요의 길을 거부하고  
예수 메시아의 길을 따라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매일을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는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 건작연은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홈페이지([www.건작연.net](http://www.건작연.net))를 구축하고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매체들을 통하여 세미나와  
포럼을 비롯한 연합모임 및 가치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각 회원교회 교우들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유튜브에 가입해주시고  
활동 및 소통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2. 6월 27일(주일) 오후 8시에 온라인(Zoom)으로 CBS  
토론 진행자인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김상덕  
박사의 강연과 더불어 "코로나시대 이후의  
한국교회"를 주제로 포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여 및 홍보를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3. 오늘 건작연 연합예배 헌금은 소속 교회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1. 건강한 작은 교회 연합은 **민주적 교회 운영, 투명한 재정, 평신도 중심**을 교회 운영의 방향으로 정한 교회들의 연합으로
  - 1)작음, 나눔, 비움의 성경적 가치
  - 2)신앙과 삶의 진실한 공동체
  - 3)가치 중심의 연합
  - 4)신자와 교회의 사회적 책임
  - 5)민주적 운영과 재정 투명성
  - 6)목회자와 일반성도의 동역을 핵심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2. 건작연은 2005년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주선하여 '개혁교회네트워크'로 발족하였고, 2013년에 건강한 작은교회연합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 3. 건작연은

연합수련회,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세미나, 연합예배, 개혁교회 네트워크 심포지엄, 연합여름성경학교 등을 통하여 교회의 건강성에 대하여 연구하고 한국 사회에 건작연의 핵심가치를 알려왔습니다.

### 4. 건작연이 발족할 2005년 당시에는

평신도 중심의 민주적 운영과 교회 재정 투명성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태였으나 지금은 보편적인 정보가 되었고 이를 지지하는 단체 및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가치를 실제 운영에 적용하는 교회는 아직 미비하여, 건작연의 역할이 아직 한국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